

---

---

# 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학연구와 실천적 한계

---

---

이 태 훈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부교수)

---

## 머리말

I. 1920년대 조선학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II. 조선학 연구의 시각과 내용

III. 조선사회의 반응과 실천적 귀결

맺음말

---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3).
- 투고일: 2018. 8. 16.    ● 심사일: 2018. 8. 17.    ● 게재확정일: 2018. 8. 30.
- <https://doi.org/10.31218/TRKH.2018.09.131.285>

www.kci.go.kr

## 요약

최남선이 1922년 조선학연구를 제기한 것은 민족의 문명적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민족부활의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한말 이래 고민의 결과였다. 서구문명 추종만으로는 주체적 문명발전이 어렵다는 생각이었다. 1920년대 최남선은 크게 세분야의 연구주제에 집중하였다. 첫 번째는 민족의 역사적 시련을 민족완성의 역사적 계기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단군과 고조선을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구심점으로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고조선의 문화유산이 민족의 생활과 신앙에 계승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최남선은 고조선을 불함문화권이라는 고대 동아시아문명의 중심국가로 입증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최남선의 연구는 커다란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일본학자들의 단군조작설을 반박하고 민족의 역사적 기원을 동아시아문명의 기원으로 재정립했기 때문이었다. 민중의 호응과 함께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의 지지도 얻어내었다. 민족적 단결을 강조하는 그의 주장이 사회주의세력의 사상공세에 대처할 사상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객관성을 결여한 연구방법론과 문명개화론과 다를 것이 없는 사상적 메시지 때문이었다. 그를 지지하던 민족주의 지식인들조차 그의 연구를 과학적 연구로 평가하지 않았고, 사회주의자들은 관념적 연구라고 비판하였다.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있었지만, 민족운동 안에서 그의 역할은 거의 사라졌다.

정력적 연구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족운동 내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자 최남선은 조선사회와 민족운동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민족적 부활을 기대하면서도 실천방법을 절실히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적 사대주의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

고 아름답게 하는 노력들이 좌절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당분간 현재사상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단군과 고조선을 사상적 지표로 정립하려 했던 시도가 한계에 직면하자 조선사회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갖게 된 것이었다. 민족운동과 조선사회에 대해 기대를 접은 그는 1928년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표출하였다. 조선민족의 문명사적 위상을 증명하여 민족자립의 원리를 제시하려 하였지만, 그러한 활동이 한계에 부딪히자 조선민족의 주체적 능력을 부정하고 일본중심의 동아시아문화론으로 흡수되어 간 것이었다.

주제어 : 민족, 불함문화론, 최남선, 문화, 문명사, 단군, 고조선, 조선학

## 머리말

일제하 조선학연구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최남선은 매우 특별한 인물이다. 1920년대 조선학연구를 주도한 인물임과 동시에 1928년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하여 조선학연구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문화적 정신적 우수성에 대한 강조와 식민지배협력이 중첩된 그의 이력은 일제하 조선학연구의 복합적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또한 조선학연구가 봄을 이룬 1930년대 조선학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극복대상이 바로 그의 연구였다는 점에서도 그의 연구와 활동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식민지기 조선학연구에서 최남선이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그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역사학, 문학, 민속학 등에 걸친 폭넓은 연구업적과 한말에서 해방 후까지 이어진 그의 지적 활동 때문에 한국학의 어떤 분야도 그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표적 연구분야인 한국고대사를 비롯하여, 민속학, 번역, 문학 분야의 성과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었고, 최근에는 그가 활용한 근대학문 방법론과 일본학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이뤄졌다.<sup>1)</sup> 그의

---

1) 최남선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 문학, 인류학, 민속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이뤄져 왔다. 한말 일제하 사상계의 중심인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학이 포괄하는 거의 진분야를 근대학문방법론을 활용하여 개척한 거의 첫번째 지식인이기 때문이다. 상당한 분량으로 축적된 그에 관한 연구를 여기서 일별할 수는 없지만, 그의 학문과 사상을 한국근대사상사의 전개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근의 주요성과로는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조동걸, 1998, 『현대 한국사학사』, 나남출판; 이지원, 2007, 『한국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이영화, 2003, 『최남선의 역사학』, 경인문화사; 전성곤, 2008, 『근대조선의 아이덴티티와 최남선』, 제이앤씨; 류시현, 2009, 『최남선 연구 -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의 문화』, 역사비평사; 육당연구학회, 2015, 『최남선 다시 읽기』, 현실문화, 2009; 육당연구학회 엮음, 『최남선과 근대지식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해명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글 역시 상당부분 기왕의 연구성과에 기반하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최남선의 사상적 구상과 그에 대한 조선사회의 반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는 조선학연구 내용만으로는 그의 지적행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왕의 연구들에서는 최남선의 체제협력력을 그의 사상이 갖고 있는 문제들 - 예컨대 보편문명사적 시각에 따른 민족문화의 독자성에 대한 취약한 인식, 문화적 민족주의에 내재된 정치경제적 타협성, 동아시아론적 시각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논리와 친연성 등 - 을 통해 설명해왔지만 연구의 한계가 그의 현실행보로 반드시 연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2)</sup> 예컨대 조선학연구에 나타난 그의 한계들은 연구초기부터 나타난 것들이란 점에서 특별히 1928년 말 이후의 행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의 행보를 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연구를 둘러싼 당대사회의 반응과 그에 대한 최남선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첫 번째 문제의식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그의 연구가 당대 조선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남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제하 조선학 연구는 단순한 학문연구가 아닌 당대 사회에 대한 사상적 실천이었다. 따라서 그의 연구가 갖는 사상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내용만큼이나 당대 사회가 그의 연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주장과 별개로 그의 사상에 대한 이해, 수용 방식에 따라 그의 주장이 당대 사회에서 갖는 의미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

---

기획』, 현실문화

- 2) 이상 최남선의 연구가 갖는 한계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조동걸, 1998, 『현대 한국사학사』, 나남출판; 이지원, 2007, 『한국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해안; 이영화, 2003, 『최남선의 역사학』, 경인문화사; 류시현, 2009, 『최남선 연구 -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의 문화』, 역사비평사, 2009

이다. 이 글의 두 번째 문제의식이다.

요컨대 최남선의 조선학연구가 지향했던 사상적 구상과 그에 대한 당대 사회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걸어간 지적행보를 내재적으로 재인식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 I. 1920년대 조선학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일제하 조선학연구의 상징적 인물이 된 최남선이 조선사회의 사상적 과제로 ‘조선학’수립을 제기한 것은 1922년이였다. 3.1운동으로 인한 1년 여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출감하자마자 자신이 창간한 잡지 동명의 연재 기사를 통해 ‘정치적 독립에 앞서 정신적 독립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선인의 손으로 ‘자기를 초지하는 정신’ ‘자기를 발휘하는 사상’, ‘자기를 구명하는 학술’을 연구하는 ‘조선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였다.<sup>3)</sup> 한말 이래 민족의식의 재확립, 각성을 위해 역사문화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항상 있었지만, 최남선은 그런 수준을 넘어 조선학 수립 자체를 사상적 과제로 주장한 것이였다.

그러나 1920년대 초반 조선사회의 상황이 과거의 역사와 정신에서 사상적 전망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에 적절한 상황은 아니였다. 오히려 조선사회의 전반적 동향은 그 반대였다. 3.1운동 이후 잠재되어 있던 소작문제와 노자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하였고, 급성장한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의 대립이 갈등 수준을 넘어 조직적, 사상적 대결 구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예컨대 그가 조선학수립을 제기한

3) 「조선역사통속강화계재」 『육당최남선전집』 2권, 411쪽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 편, 1974, 현암사) 이하 육당 최남선전집은 『전집』으로 약칭

1922년만 해도 이미 1월에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계열이 조직적으로 충돌한 ‘김윤식사회장 사건’이 발생하였고, 5월에는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발표되어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조선학 연구를 당대의 사상적 과제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식인사회의 관심 역시 새로운 사상 수용을 통한 현실개조 문제에 쏠려 있었다.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립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확산되며 현실개조 사상들에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젊은 지식층을 중심으로 맑스주의와 사회주의 사상들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사회적 자유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 같은 점진적이며 이상주의적인 개조사상들도 대거 소개되던 상황이었다.<sup>4)</sup> 전체적으로 과거의 역사와 정신을 논의하기에는 현실의 문제가 사회전반을 압도하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남선이 조선학 수립, 정확하게는 민족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연구를 당면과제로 주장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 번째는 민족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연구가 계급대립 등의 사회적 분열을 넘어 민족단결의 당위성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민족사의 전개과정이 완전한 민족을 향해 전개된 역사적 필연임을 이해한다면, 민족단결의 중요성과 당위성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한사군의 고조선침략이 고조선민으로 하여금 초보적으로나마 하나의 민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외적계기이고, 삼국의 분열과 통일이 민족 내부의 이질성을 제거하고 국토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 과정임을 이해한다면 민족적 단결의 중요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민족의 최대시련인 국권상실이 민족적 단결로 세계

4) 이상 1920년대 초반 개조사상의 유행과 사상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허수, 2011, 『이돈화연구』, 역사비평사; 이태훈, 2008, 「1920년대 초 신지식인층의 민주주의론과 그 성격」, 『역사와 현실』 67; 최선웅, 2015, 「1910년대 조선에서 자유주의의 두 가지 유형과 성격」, 『역사와 담론』 75 참조.

의 대세에 호응하라는 세계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겪게 된 역사적 시련이란 점을 인식한다면 조선사회가 추구해야 할 당면의 실천과제가 완전한 민족의 완성임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던 조선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대안이 민족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재인식으로 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sup>5)</sup>

두 번째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였다. 민족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 축적된 문명적 역량을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당면한 현실의 문제는 식민지배지만, 민족생존의 근본적 문제는 문명경쟁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통해 민족의 문명적 능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주의 생명이 어느 국토에 현현하매, 반드시 민족이란 기관을 통하여 문화라는 형식을 취한다. 역사의 가치란 것은 곧 이 민족의 현우와 근만을 사정하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생긴 문화의 질과 양이 얼마나 됄을 비교적으로 상량하는 것이다. (중략) 문화적 능력자 또 그 강자인 뒤에야 존재가 보장되고 생활이 안고하고 쾌락과 화락이 차례에 오는 것이어늘 여기에 대한 성찰과 결심과 노력이 얼마나 든독한가. 조선의 문화는 진실로 전 아세아 의식의 종합적 표현이오 전아세아 정신의 혼일적 발로지마는 이 때문에 더욱 감분하고 이 때문에 더욱 쉬려하여 파묻힌 영광을 파내고 감추인 광명을 드러내고 잠자는 심령을 喚醒하고 감추인 능력을 발용하여 세계문화의 대조류에 조선인의 화방을 등두러기 띄우려는 성의가 얼마나 되는가? (중략) 발바투 민족적 일치로써 문화권내의 유력한 일군이 되지 아니하면 만사가 휴언이다.”<sup>6)</sup>

5) 「모색에서 발견까지 - 조선민시론(1)」 『동명』, 1922.09.03; 「아아 귀중한 발견 - 조선민시론(2)」 『동명』, 1922.09.10

6) 「조선역사통속강화개제」 1922, (『전집』 2, 410쪽)



민족의 가치는 민족이 생산한 문화의 질, 양에 따라 결정되고 문화적 강자에게만 존재와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조선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아세아를 대표했던 민족의 문화적 능력을 다시 확인하고 이끌어 내야 하다는 것이었다. 문화적 발전이야말로 인류가 요구하는 생존의 원리란 인식 속에 민족의 문화적 능력을 확인하는 역사문화연구가 그 기본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3.1운동으로 민족적 각성이 시작됐지만 민족을 정신적으로 결집하고, 민족생존의 본질인 문명경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sup>7)</sup>

그리고 이런 생각은 3.1운동 이후의 갑작스런 생각이 아니었다. 식민지 강점 이래의 생각이기도 하였다. 이미 1910년대부터 최남선은 외부문명의 수용, 추수만으로는 문명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선 최남선은 자신도 포함되는 한말지식인들이 민족의 위기에 대처하는데 철저히 실패했다고 규정하였다. 국권 상실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무기력하게 굴복했다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배울만한 것을 남기지 않아 선배라고 부를 만한 존재조차 없다는 것이 최남선의 평가였다.<sup>8)</sup>

최남선은 그렇게 된 원인이 자존감을 상실한 근대문명 추수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근대문명에 지나치게 경탄하고 압도된 나머지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근대문명의 진정한 발전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기력함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근대문명이 우월한 문명이고, 반드시 흡수해야 할 문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근대문명의 현상적 결과를 특권화 할 경우 근대문명 발전의 진정한 동력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현실 대응의 의지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었다.<sup>9)</sup>

7) 위의 글.

8) 「아관 - 우리들은 선배란 것이 없음」 『청춘』 6호, 1915 (『전집』 9, 150~151쪽)

9) 즉 무조건 근대문명에 감탄하고 위축된다면 ‘정신적 상실감과 무기력만을 확대하여,

이런 비판 속에 최남선이 도달한 결론이 바로 민족의 내재적 역량으로부터 문명적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문명의 발전동력이 창조력, 독창성, 강인한 의지, 근면함 같은 정신적 능력이라면,<sup>10)</sup> 그러한 정신적 능력을 조선민족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활자, 비차, 철선, 대포, 예술, 축합, 문자창제 등의 성과에서 보이듯이 서구의 어떤 민족에도 뒤지지 않는 창조력, 독창력, 발명력을 발휘하였고, 위대한 화유력, 두터운 발명재, 투철한 실행력 같은 능력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sup>11)</sup> 다만 누적된 의외심과 위축된 정신으로 인해 그러한 문명적 능력을 잇은 것이므로 민족의 역사 속에 내재된 역량을 다시 이끌어 낸다면 문명민족으로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12)</sup>

요컨대 한말지식인들의 실패를 비판하며, 주체적 문명발전의 전망을 생각한 최남선은 민족의 역사 속에서 문명발전의 동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하였고, 그 결과 민족적 자각이 시작된 3.1운동 이후의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조선학연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었다. 문명발전을 추구하면서도 근대문명 추수론은 곤란하다고 생각했던 그로서는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문명적 능력을 이끌어내는 실천이야말로 조선민족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노력이기 때문이었다.

---

쓸데없이 남을 무시위하거나, 남의 큰 것만 바라보게 할 뿐, 남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최남선, 「청년학우회의 주지」 『소년』 3-6호, 1910 (『전집』 10, 426쪽)

10) 최남선, 「청년학우회의 주지」 『소년』 3-6호, 1910 (『전집』 10, 426쪽)

11) 최남선, 「용기론」 『청춘』 11호, 1917.11 (『전집』 10, 207쪽); 최남선, 「아들은 세계의 갑부」 『청춘』 7호, 1917.07 (『전집』 10, 299쪽)

12) 예컨대 다음과 같은 주장이었다. “아등으로 하여금 무형적 부로부터 유형적 부와 시간적 부로부터 공간적 부로 진케 하는 천강의 옥척이니 차언을 극체할 따름이오 차도로 면진할 따름이라. (중략) 인의 부한 소이인 발명재, 독창력이 아에게 구비 겸존함을 자각하며 다만 인처럼 부할 만한 운영과 노력이 일무전핍한 것이 아의 빈치 아니치 못할 소이임을 심성할지이다.” 최남선, 「아들은 세계의 갑부」 『청춘』 7호, (『전집』 10, 299쪽)

## II. 조선학 연구의 시각과 내용

1922년 조선학수립을 제기한 최남선은 문제제기와 동시에 곧바로 자신의 주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역사연구에 착수하였다. 조선학수립을 제기한 ‘조선역사통속강화개제’를 시작으로 1920년대에만 20여편의 글을 발표한 정력적 작업이었다. 최남선이 집중한 연구주제는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였다. 역사연구의 목적이 민족의 문화적 유래와 발전과정, 그리고 주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고 생각한 그는 민족과 민족문명의 시작인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연구가 조선역사문화연구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sup>13)</sup> 1920년대 그가 수행한 주요 작업은 다음과 같은 글들이었다.

1920년대 최남선의 주요 저작

| 글제목                     | 게재지면                   | 발간년도     |        | 기타사항 |
|-------------------------|------------------------|----------|--------|------|
| 「조선통속강화개제」              | 『동명』 1권<br>3호 - 2권11호  | 19220917 | 230311 |      |
| 「조선민사론」                 | 『동명』 1권<br>1호 - 1권 13호 | 19220906 | 221126 |      |
| 「인 급 조선인에게 소리친다」        | 『괴기』 1                 | 19250500 |        |      |
| 「비미의 일환멸 - 한반도의 몰락」     | 『동아일보』                 | 19250815 |        |      |
| 「비스마르크를 회함 - 독일 국민의 총명」 | 『동아일보』                 | 19250826 |        |      |
| 「자기망각증 - 시조의 병적 일경향」    | 『동아일보』                 | 19250908 |        |      |
| 「곡백암박부자 - 다시 못 볼 이 노소년」 | 『동아일보』                 | 19251105 |        |      |

13) 「조선역사통속강화개제」 1922, (『전집』2, 410쪽)

사학연구 제131호(2018. 9)

|   |                   |          |        |  |
|---|-------------------|----------|--------|--|
| 「불합문화론 - 조선을 통하여 본 동방문화의 연원과 단군을 계기로 한 인류문화의 일부면」 | 미간행 원고            | 19251227 |        | 신문연재물로 기초되었으나 1927년 『조선급조선민족』에 발표됨.        |
| 「조선사상 세계적 사실 - 久遠을 帶한 과거 三丙寅」                     | 『동아일보』            | 19260101 | 260103 |  |
| 「조선역사 급 민족지상의 호」                                  | 『동아일보』            | 19260101 | 260211 |  |
| 「조선심 조선어 - 교과서 개정의 안목」                            | 『동아일보』            | 19260206 |        |  |
| 「단군부인의 망 - 문교의 조선의 광론」                            | 『동아일보』            | 19260211 | 260212 |  |
| 「단군론 - 조선을 중심으로 한 동방문화 연원 연구」                     | 『동아일보』            | 19260303 | 260735 |  |
| 「아시조선」  | 『조선일보』            | 19260400 |        | 1926년 4월에 『조선일보』에 「고조선 그 문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
| 「백두산의 신비 - 동방운명의 암시자」                             | 『동아일보』            | 19260622 | 260624 |  |
| 「백두산 의식을 淸어(쉬려)」                                  | 『계명』 부흥호          | 19261000 |        |  |
| 「개천절 - 전민적 명절」                                    | 『동아일보』            | 19261107 |        |  |
| 「단군계의 표성 - 조선심을 구현하라」                             | 『동아일보』            | 19261212 |        |  |
| 「조선사학의 출발점」                                       | 『동아일보』            | 19270329 |        |  |
| 「반드시 조선심이 생길 줄 아오」                                | 『별건곤』 6-4         | 19270400 |        |  |
| 「살만교차기」   | 『계명』 19           | 19270500 |        |  |
| 「개천절」   | 『동아일보』            | 19271029 | 271030 |  |
| 「조선의 구원상」   | 『동아일보』            | 19271111 | 271112 |  |
| 「개천절 - 조선심경의 중마일」                                 | 『동아일보』            | 19271118 |        |  |
| 「조선역사강화」  | 『한빛』 1, 2, 4-5병합호 | 19280000 |        |  |
| 「의미 깊고 변천 많은 10년」                                 | 『신민』 신년호          | 19280100 |        |  |

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학연구와 실천적 한계

|  |           |          |        |                                      |
|--|-----------|----------|--------|--------------------------------------|
| 「조선문화의 일체 종자인 단군신전의 고의 - 기원72주의 무진년을 맞이하여」               | 『동아일보』    | 19280101 | 280228 |                                      |
| 「단군신전에 들어 있는 역사소」  | 『중외일보』    | 19280101 | 280118 |                                      |
| 「통일기의 신라 - 현 조선국토 급 문화의 영아기」                             | 『청년』 8-2  | 19280300 |        |                                      |
| 「70년 전에 단신 실사도력 창제한 고산자의 대동여지도」                          | 『별건곤』 5   | 19280500 |        |                                      |
| 「단군급기연구」   | 『별건곤』 5   | 19280500 |        |                                      |
| 「단군과 삼황오제 - 신도를 통해서 보는 고조선 급 지나의 원시규범적 류동」               | 『동아일보』    | 19280801 | 281216 | 12월 조선사편수회 위원이 되자 게재 중단              |
| 「개천절」  | 『신생』 2    | 19281100 |        |                                      |
| 「신대의 대식민가 신라왕자 천일장 - 구주로부터 대판 돈하의 일대에 자성이 번연하여 묘식면년 수천년」 | 『괴기』 1    | 19290500 |        |                                      |
| 「조선사의 기자는 지나의 기자가 아니다」                                   | 『괴기』 2    | 19291200 |        | 1943년 반도사화와 낙토만주에도 게재                |
| 「조선역사강화」   | 『동아일보』    | 19300112 | 300315 |                                      |
| 「고조선에 있어서의 정치규범」   | 『조선학보』1-1 | 19300800 |        |                                      |
| 「조선불교 - 동방 문화사상에 있는 그 지위」                                | 『불교』 74   | 19300800 |        | 1930년 7월 하와이 법태평양 불교대회에 발표할 팜플렛본의 원고 |
| 「단군소고」   | 『조선』 186  | 19301100 |        |                                      |
| 「신라 진흥왕의 재래 삼비와 신출현의 마운령비」                               | 『청구학보』 2  | 19301100 |        | 일본어                                  |

출전: 『육당 최남선선생 연보』 『육당 최남선선집』 15권을 기초로 작성

이상의 연구작업을 통해 최남선이 집중한 문제는 크게 세가지였다. 첫 번째는 민족사의 전개과정이 민족의 완성과 문명적 자각을 향한 과정

이란 점을 민족의 역사적 시련에 대한 해석을 통해 밝히는 것이었다. 현재를 민족적 재도약의 기회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조선역사 전체를 이 기회를 향해 진행되어 온 과정으로 재해석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단군과 고조선을 역사적 실체이자 동아시아문명의 중심으로 밝히는 것이었다. 문화적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 갖고 있는 문화적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족의 시작점인 단군과 고조선이 그러한 문화적 능력의 근원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최남선은 자신의 거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고조선연구에 전력하였고, 특히 고조선이 동북아문명의 중심임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고조선을 동북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문명의 중심으로 증명하여 문화적 부활의 필연적 근거를 제시하려 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조선 이래의 문명적 유산이 역사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삶속에 계속 보전, 계승되어 왔음을 밝히는 것이었다. 국가사의 부진과 별개로 고조선에서 시작된 문화적 유산이 민족의 내면에 계승되었음을 밝힘으로써 민족부활의 현재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최남선은 민족의 역사적 시련을 민족완성의 계기적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의 침략, 삼국의 분열과 통일, 발해와 고려의 분립, 그리고 국권상실이 모두 완전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나뉠의 단계라는 것이었다. 즉 한사군의 침략은 민족의식이 전혀 없던 고조선 민들이 초보적으로나마 하나의 민족을 깨닫는 계기였고, 삼국의 분열과 통일은 한사군 축출 이후 생겨난 민족구성원 간의 내적 이질성을 제거하고 국토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단계였으며, 고려와 발해의 분립은 삼국통일과정에서 불충분했던 정신적 통일감과 북방경영의지를 확충하기 위한 시련이라는 것이었다. 국권상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족적 각성을 이루지 못한 조선민족으로 하여금 스스로 완전한 민족이 되려는 생활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 세계사가 부여한 마지막 시련이란

것이였다.14) 조선민족이 겪은 모든 역사적 시련은 현상적으로는 고통의 과정이지만, 그 본질은 민족적 자각을 향한 계기적 과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권을 상실한 현재 역시 ‘가장 복잡한 내용과 웅대한 체적’의 민족 의식을 갖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최남선의 생각이였다.15)

두 번째 단군조선 관련내용은 최남선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분야였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연구성과가 집중된 고조선연구에서 최남선이 주장한 논점은 크게 세가지였다. 첫 번째는 삼국유사의 기사가 역사적 사실이며, 따라서 단군조선을 역사적 실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조선은 조선민족의 국가적 시작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문명의 시원이라는 것이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조선의 발전과정은 조선민족에 의한 내재적 발전과정이라는 것이였다.16)

먼저 최남선은 삼국사기 단군기사가 불가승려들에 의해 만들어진 설화이거나 평양을 의미하는 왕협성의 향토신화라는 일본인의 위작설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의 단은 승려들이 쓰던 태백산 향나무 檀이 아닌 군장을 의미하는 壇이며, 왕검은 임금을 의미하는 엄검의 변형이므로, 일본 관학자들의 위작설은 조선민족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한 망설일 뿐이라는 것이였다.17) 또한 단군기사의 신화적 내용은 동북아시아 공통신화와 단군조선의 역사적 발전과정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군신화의 내용은 동북아시아 공통문화의 반영이자 ‘한’민족이 주변 종족들을 흡수하여 국가적 발전을 이루어 가는 과정의 기록이란 것이였다.18)

14) 「모색에서 발견까지 - 조선민서론(1)」 『동명』, 1922.09.03

15) 「아아 귀중한 발견 - 조선민서론(2)」 『동명』, 1922.09.10

16) 이하 단군조작설 비판과 단군신화 해석에 대해서는 이영화, 앞의 책, 139~142쪽을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17) 「단군론」 1926, 『전집』 2, 85~109쪽); 「단군부인의 망」 1926, 『전집』 2, 77~78쪽)

이어 최남선은 삼국유사의 기사와 동북아시아 전지역에서 발견되는 지명적 유사성, 샤머니즘 신앙을 근거로 고조선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까지 이어지는 세계 최대문화권, 이른바 불함문화권의 중심국가라고 주장하였다. 태양숭배를 의미하는 ‘불’이 동북아시아의 지명 곳곳에서 발견되고, 무당이 중심이 된 샤머니즘이 대부분의 지역에 잔존한 것은 동북아시아가 원래 하나의 문명권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문화요소들이 압축적으로 기술된 단군조선 관련 기록은 단군조선이 불함문화권의 중심국가임을 보여주는 증거란 것이었다.<sup>19)</sup> 마지막 세 번째로 최남선은 고조선이 외부의 개입 없이 내재적으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고대 동북아시아의 몽고계 인종 중 스스로를 천제의 자라고 믿었던, ‘한’, 혹은 ‘닥’ ‘박’으로 불렸던 민족이 백두산, 송화강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종족들을 교화, 포섭하여 단군조선을 건설하였으며, 그 단군조선이 농경시대에 이르러 부여조선과 5부여 체계로 발전한 후 고구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었다.<sup>20)</sup> 특히 중국문명 전래설의 증거로 거론되는 기자조선도 오부여의 대표자인 왕검조선의 수장 개아지조선을 의미한다고 하여 고조선사가 조선민족에 의한 일원적 발전과정임을 주장하였다.<sup>21)</sup> 요컨대 단군조선은 역사적 실체이자, 동아시아문명의 중심국가이며, 조선민족은 인도계열, 중국계열 문명과 견줄만한 세계사적 문명의 주체라는 것이 최남선의 주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최남선은 고조선의 문화적 유산이 조선민족의 역사 속에 면면히 계속 이어졌음을 강조하였다. 국가사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단군과 고조선의 문화적 유산이 삶의 습속과 신앙의식 등을 통해 끊임없이

---

18) 「단군신전에 들어 있는 역사소」 1928, (『전집』 2, 232~237쪽)

19) 「불함문화론」 1926, (『전집』 2권, 43~63쪽); 「조선역사통속강화개제」 1922, (『전집』 2, 429~430쪽)

20) 「아시조선」 1926, (『전집』 2, 153~161쪽)

21) 위의 글; 『조선역사강화』 1928, (『전집』 2, 521쪽); 류시현, 앞의 책, 187~188쪽 참조



계승되었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등의 명산은 조선심, 조선생명을 가장 철학적 예술적으로 품고 있는 성지이며, 산천에 대한 신앙은 고대의 문명정신을 계승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선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간직해 온 산들의 신성함은 민족이 정신적으로 귀일할 구심점을 알려주는 지표이며, 따라서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2)</sup> 민간신앙 역시 단군 이래의 민족정신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였다. 불함문화의 시원적 특징인 제천신앙, 즉 고신도는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국가적 차원의 신앙, 제사로는 쇠퇴했지만, 사당패, 계, 무속 등의 생활습속과 ‘남조선’사상, 정감록, 동학 등의 유포피아니즘, 민중봉기 사상이 그 형태와 정신을 계승했다는 것이었다.<sup>23)</sup>

요컨대 최남선은 단군과 고조선을 역사적 실체로 입증하고, 동북아시아 전역을 포괄하는 불함문화권의 중심으로 설정함으로써, 민족사의 역사적 의의를 동아시아 문명 강국의 역사로 재규정 한 것이었다. 또한 신앙과 풍습, 지명을 통한 문명유산의 내적 계승을 강조함으로써, 문명국가로의 부활 가능성이 여전히 민족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한 것이었다. 오랜 국가사의 부진과 식민통치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실천여하에 따라 세계 문명의 주체로 재도약할 가능성이 조선민족에게 있다는 점을 역사문화연구를 통해 제시하려 한 것이었다.

### Ⅲ. 조선사회의 반응과 실천적 귀결

최남선이 1920년대 진행한 이상의 연구들은 조선사회에 상당한 반응

22) 「백두산의 신비 - 동방운명의 암시자」 1926, (『전집』 9, 80~82쪽)

23) 「불함문화론」 1926, (『전집』 2, 59쪽)

을 불러 일으켰다. 단군과 고조선을 역사적 실체로 밝힘으로써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적 역사상을 제시한데다, 조선민족의 역사를 세계사적 문명으로 격상시켜 훼손된 민족적 자긍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전국 곳곳에서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한 강연회가 개최되었고,<sup>24)</sup> 학생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연이어 그를 강사로 초빙하였다.<sup>25)</sup> 또 그의 연구를 묶어 정리한 책들은 호평과 더불어 출간되었고,<sup>26)</sup> 전국에서 열린 환영회가 개최되었다.<sup>27)</sup>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하여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후에도 그의 책을 읽었던 독자들이 꼭 만나고 싶었던 인물이었다고 회고할 정도로 그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특히 조선학수립을 주장할 때만 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민족주의세력은 그의 연구를 크게 환영하였다. 김윤식사회장 반대운동, 연정회사건, 물산장려운동 등을 겪으며 정치사회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민족주의세력에게 민족의 역사적 동일성과 우수성을 강조한 최남선의 주장은 사회주의세력의 공격에 대응할 요긴한 사상자원이기 때문이었다.<sup>28)</sup> 민족주의계열을 대표했던 동아일보는 그를 논설축탁으로 초빙하여 시대일보 이후 발표공간이 없던 그에게 마음껏 주장을 펼칠 지면을 제공하였고, 사설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그의 주장을 지원하였다.<sup>29)</sup> 예컨대 동아일보는 조선민족이라면 마땅히 단군과 고조선을 재인식해야 하며, 조선민족은 세계적 문명민족임이 분명하다는 그의 글을 사실로 게재하여 주

---

24) 예컨대 다음과 같은 행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六堂 崔南善先生 夏期 朝鮮史講座, 東亞日報大邱支局 後援』 『동아일보』 1926.07.31

25) 『朝鮮學生會主催音樂及講演會, 崔南善氏와 李肯鍾兩氏의 演辨』 『동아일보』, 1925.12.13

26) 『崔南善 百八煩惱, 東光社刊』 『동아일보』 1926.12.20

27) 『崔氏歡迎會開催』 『매일신보』, 1928.09.08

28) 1920년대 중반 동아일보의 단군선양과 최남선 활용에 대해서는 이지원, 앞의 책, 227~230쪽 참조.

29) 그는 1925년 동아일보의 객원축탁이 되었다.

장에 힘을 실어 주었고,<sup>30)</sup> 그가 주관하는 답사회, 강연회를 개최하여 활동을 지원하였다.<sup>31)</sup> 최남선의 입장에서 보자면,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통해 대중적 지지와 지식인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중적 영향력이 확대된 것과 별개로 최남선의 조선학연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연구방법론과 근거에 문제가 있었고, 사상적 주장 역시 공허했기 때문이었다. 우선 핵심주장이었던 불함문화론부터 연구방법론과 논지에 문제가 있었다. 최남선은 언어계통추적을 통해 ‘뽕’의 어원인 park과 단군의 어원인 taigar의 류언이 발견되는 몽고, 터키, 일본, 류큐, 중앙아시아, 발칸반도, 흑해연안 등을 불함문화권으로 설정했지만, 언어분석 이외에는 사실상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이었다.<sup>32)</sup> 최남선은 남아 있는 다른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불함문화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어추적 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종과 언어, 역사가 상이한 유라시아 전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으면서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그가 증거로 제시한 언어계통분석도 객관적 근거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가 활용한 언어계통 추적방식은 단어에서 어원을 추정하고, 다시 추정된 어원을 각기 다른 언어의 음가에 맞춰 추론하는 방식이었지만, 어원 추정기준이나 유사성 추론기준 자체가 그의 주관적 판단이었다. 예컨대 최남선은 단군의 어원을 taigar로 추정하고, 다시 taigar가 금강(tagar), 토함(taigam), 단굴(Tan-kul), Tengeri(터키어), Tangri(몽고어), タケル(일본어), 天, 帝(한자) 등에 통한다는 점을 들어 중국을 제외한 관련지역을 모두 불함문화권으로 설정했지만, 단군이 taigar로 추정되고, taigar가 tagar,

30) 『동아일보』, 1926.12.09, 사설 「단군계의 표성(상)- 조선심을 구현하라」

31) 다음과 같은 행사들이다. 『동아일보』, 1926.07.03, 「최남선선생 조선역사강좌」

32) 불함문화권과 언어계통분석에 대해서는 이영화, 앞의 책, 95~99쪽 참조.

taigam으로 변형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sup>33)</sup>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어원을 설정하고, 다시 언어 간의 관계를 추적한 것이었다.

더구나 유사단어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문화권을 설정하는 것은 논리비약이었다. 음가로 판단된 유사 단어가 그가 설정한 문화권 밖에서도 찾아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taigar와 유사 음가의 단어인 Tañ ra(틸림. 숲)가 있는 러시아나 tagar(천둥)이 있는 인도네시아도 그의 방식대로라면 불함문화권에 설정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최남선은 자신의 분석이 비교언어학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그와 동시대의 지식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연구에 비판적인 인물들은 그의 주장이 근거 없는 억설이라고 비판하였고<sup>34)</sup>, 그와 친분관계에 있던 인물들도 ‘비슷한 면만 보이면 어떻게든 조선학에 연결시키는 그의 연구방식을 비합리적이며 동의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평가하였다.<sup>35)</sup> 불함문화론을 통해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얻었지만, 학문, 사상적 신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이었다.<sup>36)</sup>

---

33) 최남선의 어원추정이 갖고 있는 자의성을 예리하게 지적한 인물은 홍기문이다. 홍기문은 최남선이 고대의 발음을 현대에서 추정하고, 음가의 변용을 자의적으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최남선의 연구가 비과학적이라고 맹렬히 비판하였다. 홍기문의 글은 1930년대에 쓰여진 글이지만, 이미 1920년대부터 그의 연구방법론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대에도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안재홍, 「최육당의 “백두산근참기”를 읽음」 『조선일보』 1927.10.16(안재홍 선집 간행위원회 편, 1972, 『민세 안재홍선집』4, 지식산업사, 226쪽); 홍기문, 「역사와 언어의 관계」 『조선일보』 1935.02.06

34) 홍기문, 위의 글.

35) 안재홍, 앞의 글.

36) 그의 친구이자 민족주의계열의 핵심적 지식인이었던 이광수에 의하면 그의 역사론이 갖고 있는 효용성은 과학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인이 원하는 기쁨을 주기 때문이었다. 그의 역사론이 주장하는 바를 믿지 않지만, 대중에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그의 역사론은 엄정하게 과학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좋다. 조선사람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더욱이 더 큰 문제는 고대 동아시아가 하나의 문화권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조선이 불함문화권의 중심이란 핵심논지는 언어분석만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언어계통의 분석이 문화들 사이의 유사성을 밝혀내는데 유효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문화들 사이의 위계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최남선은 한반도 북부의 지명에서 핵심 단어인 백이 집중되고 볏사상의 정수를 단군신화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너무나 취약한 근거였다. 단어의 발견 숫자와 단군신화에 대한 평가는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주장대로 고조선이 문화권의 중심이라면 여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조선 문화의 선진성이나 주변문화로의 문화전파 과정이 설명되어야 했지만, 최남선은 그에 해당하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의 말처럼 고조선 관련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어쩔 수 없는 한계였지만, 논리의 취약성은 피할 수 없었다.

최남선 역시 이점을 모르지 않았다. 최남선은 해방 후 불함문화론을 재론하며, 동아시아가 하나의 문명권이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유일하게 고조선이 문화권의 중심이란 주장만은 부정하였다. ‘조선의 문화가 북동 아세아적이라 해도 그것은 우리와 그네들과 문화적으로 동일한 계열에 매여 있다는 말이지, 결코 우리 문화가 북동아세아를 영도해 나왔다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이었다. 식민지시기와 달리 주장에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고조선의 문명적 위상만을 부인한 것은 그 스스로 자신의 논증이 갖는 한계를 알기 때문이었다.<sup>37)</sup>

불함문화론 더불어 최남선의 주장이 갖고 있던 또 하나의 중요한 문

---

게 힘과 뜨거움을 주는 조선사를 구하는 것이지 반다시 과학적 조선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룩당은 그것을 우리에게 줄사람이다.” 이광수, 양건식, 염상섭, 1925.03, 「육당 최남선론」, 『조선문단』 6, 88쪽.

37) 최남선, 「조선문화의 본질」, 『전집』9, 382쪽, (『연합신문』, 1957.10.22)

제는 고조선연구에서 식민지 조선사회를 설득할 유의미한 사상적 메시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였다. 최남선은 천신을 숭배하는 제사중심의 문화와 꾸밈이 없는 질직함을 고조선 문화의 특색으로 제시했지만,<sup>38)</sup> 이러한 특성은 고조선문화가 신앙적 성격이 강했음을 드러낼 뿐, 식민지 상황에서의 실천과는 아무관계가 없는 것이였다. 또한 그가 고조선인의 생활특징으로 꼽은 생식지상주의, 노동중심주의, 광명의 지상구현 열망 같은 것들은 신에 대한 독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근면성실하게 실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근대의 생활윤리와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다.<sup>39)</sup> 고조선 문명의 정신적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당대의 사회주의나 문화운동론에 대응할만한 사상적 주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였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그의 주장을 현실과 거리가 먼 국학자의 주장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 학자들의 단군날조설을 비판하고, 민족의 고문화를 밝혀낸 그의 활동은 높이 평가받았지만, 그의 지인들조차 그의 주장을 의미 있는 사상적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평가는 ‘현실변혁이 급박한 시대일지라도 것처럼 조선의 고문화를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것 정도였다.<sup>40)</sup>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밝혀내는 고독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였다. 오히려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연구를 여유 있는 지식인의 한가로

---

38) 최남선이 고조선인의 문화적 특질로 제시한 핵심은 제사중심의 질박함이었다. 모든 것이 제사중심이라는 것이였다. 『아시조선』 1926, (『전집』 2, 175~177쪽)

39) 위의 글, 187~189쪽.

40) 이러한 평가는 그에게 많은 친밀감을 표했던 안재홍의 평가였다. 안재홍은 기본적으로 그의 조선학연구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그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음과 같은 평가였다. “현하의 조선은 급격한 변동의 도정에 있고 이는 필연-당위이다. 현대적, 과학적 혁명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나 오천년 격심한 풍랑의 역사를 거치고 고향에 타다남은 고문화의 자취를 사랑하고 중히 여겨 천명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안재홍, 앞의 글, 227~228쪽.

운 주장이라고 폄하하였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시니컬한 평가였다.

“씨의 작으로는 심춘순례, 백팔번뇌, 백두산 예찬 등이 있으나 삼순구식 군에게는 하등과동이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 씨의 항상 창도하던 조선심에 대하여 근일에 와서는 그 존음을 끈쳤다. 물론 조선어사전편찬감독을 하는데에 다망해야 그러한지는 모르나 조선심이라 의의가 결국 여기에 끄친 것인지. 씨는 대식가라 한다. 대식가인 씨인만큼 근력이 조해서 좌담을 잘하고 강연에도 보통 2~3시간이 걸린다 한다. 조선심은 잘 먹는 사람들의 노래인가?”<sup>41)</sup>

조선학연구의 성과는 인정하지만, 그의 조선학은 삼순구식하는 보통 사람들과 상관없는 관념적 주장이며, 그가 주장하는 조선심도 여유 있는 지식인의 ‘노래’일 뿐이란 것이었다. 최남선은 역사연구를 통해 민족의 사상적 구심점을 확립하려 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관념적 국학자의 주장 이상의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었다.

여기에 그의 지식인사회에서의 역할 역시 조선학연구의 성공과 반대로 192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축소되었다. 1924년 시대일보 경영에 보천교를 끌어들이는 문제로 지식인으로서의 명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데다<sup>42)</sup>, 계명구락부에 참여하여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민족운동, 사회운동 단체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43)</sup> 집필활동을 제외하면 한가하게

- 41) ASC, 「만화자가 본 문인」 『조선일보』 1927.11.05; 류시현, 2009, 『최남선 연구 -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의 문화』, 역사비평사, 2009, 260쪽
- 42) 잡지 동명의 창간 이래 계속해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최남선은 부족한 시대일보 창간자금을 구하기 위해 비밀리에 보천교에 지분을 넘겼지만, 이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보천교에 비판적이었던 지식인사회, 특히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중의 공기인 신문을 넘긴 인물로 비판됨에 따라 지식인 사회에서 그의 명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 43) 그는 1925년 계명구락부의 재계에 참여하여 조선어편찬사업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단체에서 그가 책임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자신의 생활을 즐기는 그에 대해 음풍농월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사회활동은 미미하였다. 문필활동을 제외한 사회적 역할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었다.

그러나 최남선은 이런 상황을 자신의 한계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남선은 문제는 조선사회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기에 대한 자각, 자기의 출발점, 집주점, 의지점에 대한 반성과 각성이 부족하여, 입만 열면 민족애를 얘기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절실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었다.<sup>44)</sup>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이 아닌 조선사회에 있다고 판단되자, 최남선은 자신의 주장을 가로막는 조선사회를 맹렬히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최남선은 민족적인 것을 무시하는 사회주의세력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른바 신인들이 민족정신, 민족사조, 민족연구, 민족운동 같은 것을 시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함에 따라, ‘더욱 조선을 사랑하여 조선을 아름답게 하여야 함에도, 속심 있는 활동이 생기지 않고 있’으며,<sup>45)</sup> ‘이렇게 조선인에게 조선심을 내어 놓으면 아무것도 없음에도 조선에의 무관심, 전통의 무시 내지 조국의 저주를 일삼는 사회주의자들은 커다란 무식이요, 치욕이요, 죄악이라는 것’이었다.<sup>46)</sup> 1920년대 초반 잡지 『동명』 시절까지만 해도 사회주의사상을 세계개조시대의 신사조로 이해

---

그의 소외에는 그의 개인적 성격 역시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한 자부심 때문에 주위를 무시하며, 실무적 역량이 없다는 것이 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공통된 평가였다. 주장이 강하고, 경력적 인물이지만, 독단적이고 우월하며, 남의 인격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조차 그와 같이 일하는 것을 꺼려하였다는 것이었다. 이광수, 양건식, 염상섭, 「육당 최남선론」 『조선문단』 6, 1925.03, 79~94쪽.

44) 「단군계의 표성」 『동아일보』 1926.12.12 (『전집』 9, 196쪽)

45) 최남선, 「자기망각증 - 시조의 병적 일경향」 『동아일보』 1925.09.08 (『전집』 10, 217쪽)

46) 최남선, 「조선의 구원상」 『동아일보』 1927.11.12 (『전집』 10, 231쪽)



하고 번역물을 통해 적극 소개했던 그였지만,<sup>47)</sup> 민족적인 것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세력에 의해 ‘더욱 조선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하려는 노력’들이 좌절되고 있다고 생각되자 민족의 치욕이라고 격렬히 비판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세력에 대한 비판은 나아가 사회주의세력이 주도하는 조선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10년 후에는 변하게 될 1927년 현재 조선사회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때 잘쓰는 자가 장사요, 욕 잘하는 자가 장사요, 억설 잘하는 자가 장사요, 흉내 잘내는 자가 장사요 (중략) 덕없음과 영터리 없음과 주책없음과 가늌없음 등의 세력권은 불쌍하게도 축소될 것이다. 행뎡그렁한 세계대세론, 얼레빗살 같은 인도정의론도 안색이 펍 감손될 것이다. (중략) 그때는 마르크스업보다도 레닌 성주보다도 단군 터죽대감이 정신계의 지주인 것, 인류경험이 시간적 전 가치와 조선사명의 특수적 전 내용을 넉넉히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용기로의 단군이 모든 방면에 있는 종합적 최상 표현으로 만민에게 표거되고 감입되고 염봉될 것은 다시 긴말이 되겠으니 그만두자.<sup>48)</sup>

‘때 잘쓰고 흉내 잘 내는 자’들이 득세하고, 내용도 없는 세계대세론, 인도정의론과 마르크스, 레닌이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 조선의 상황 때문에 ‘조선사명의 특수적 내용이 넉넉히 담길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인 단군’이 만민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족적 정신을 담은 사상을 제시했음에도 외래사상에 지배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억설군들에게 지배되는 조선사회의 상황 때문에 자신의 구상이 좌절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47) 류시현, 2011, 『최남선평전』, 한겨레출판, 85~87쪽.

48) 최남선, 「반드시 조선심이 생길 줄 아오」 『별건곤』 6-4, 1927.04 (『전집』 10, 233쪽)

그리고 이런 조선사회 상황에 대한 비판은 민족적 인식으로 귀일되지 않는 민족운동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확대되었다. 1926년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세력의 협동전선운동 모색이 알려지자, 최남선은 정우회선언이 국제공산당의 영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 높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고<sup>49)</sup>, 민족운동 전반의 상황도 말만 많고 일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폄하하였다.

(10년 후에는) 관념적 주의니 경향이니 간판 지상의 운동이니 방략이니 하던 일을 회고하고는 너무 과한 유희기분을 애달파하는 소리를 당년의 용사들에게 골고루 들을 것이다. 그만큼 지내 보아도 불상용할 것 같이 피아가 대립하고 또 당중에 입당하고 또 각개 스스로의 속에도 백천무량의 반발분자를 지녀서 자기통일부터 못하여 애쓰던 일이 실로 우스운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sup>50)</sup>

조선적인 것으로 중심사상, 지도원리가 확립되지 않는 이상 민족운동은 끊임없는 분열을 피할 수 없고, 이 과정을 겪은 먼 10년 후어나 사상적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2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조화가능성을 생각했던 그였지만, 민족적 일치의 의식이 배제당하고, 외래사상과 외세에 의존한 ‘용사’ 들이 주도하는 현 상황에서는 민족운동의 전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단군과 고조선이 사상적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음에도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조선사회의 상황에 깊은 좌절감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감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순수한 연구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민족적 지도원리가 없는 민족운동은

49) 『중외일보』, 1927.01.03, 「세계대세와 조선인의 진로」

50) 최남선, 「반드시 조선심이 생길 줄 아오」(『전집』 10, 233쪽)

계속 공전할 것이기 때문에,<sup>51)</sup>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역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sup>52)</sup> 시대일보 실패 이래 부채에 시달리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신간회운동이 한참 진행되던 1928년 12월 조선사편수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생각의 결론을 행동으로 표출하였다. 학문 연구를 위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란 것이었다.<sup>53)</sup> 민족적 실천의 문제가 거세된 그의 연구는 일본 중심의 광역문화권 논리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학문연구 뿐이며, 고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를 해명한다면 조선민족의 입지도 다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 
- 51) 위의 글에서 최남선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묘사는 10년 후의 미래에서 현재를 회고한다는 점에서 10년후에나 지금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의 착잡함이 역설적으로 슬회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뒤에 와서 보면 너무 명백하달 만큼 명백한 이 이취를 그때에는 어찌서 깜깜들 하였던가? 그뎨들 이런 생각을 아직들 아니하였을까마는 이런 말을 도리어 귀에 거슬리게 듣는 일이 차마 우습다. 어허, 시방와서는 뒤늦게나마 깊은 자각과 아울러 큰 변통도 있으니까 앞으로야 관계치 않겠지마는 왜 10년이란 조은 세월의 대부분을 그렇게 못쓰게 허비하였던가 하는 소리를 많은 사람의 입에서 들을 것이다. 최남선, 「반드시 조선심이 생길 줄 아오」 『전집』 10, 232쪽
- 52) 1931년 여전히 그에게 애정이 있던 독자들이 다시 민중에게 돌아올 수 없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현재에 허락되는 일을 아직 그대로 하겠습니까. 앞에 일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였다. 말하고 싶지 않다는 그의 냉담함은 그가 자신이 처했던 ‘앞의 일’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하겠다. 『동광』 1931, 12, 59쪽; 류시현, 앞의 책, 263~264쪽에서 재인용.
- 53) 최남선은 자신이 조선학편수회에 들어 간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적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짧게 이유를 슬회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일생의 목적으로 정한 學研 사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그 봉록과 밑 그리로서 얻는 학구상 편익을 필요로 하였었다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열서」 1949, (『전집』 10, 530쪽)

## 맺음말

일제하 조선학 연구의 상징적 인물이 된 최남선이 조선학 수립과 역사연구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1922년이였다. 이미 1910년대부터 역사연구를 부분적으로 진행해 온 그였지만, 3.1운동으로 인한 수감생활을 마친 후 민족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연구를 자신의 필생의 과제이자, 조선사회의 사상적 과제로 제기한 것이였다.

3.1운동 이후 사회적 모순이 폭발하고 사회개조의 사상이 풍미하던 상황에서 자칫 현실피리의 논리로 치부될 위험성을 감수하고 조선학 연구를 사상적 과제로 제기한 것은 역사와 정신의 연구가 단순한 과거탐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였다. 문명경쟁이 민족생존의 근본적 문제라는 점에서 민족적 단결의 중요성과 민족의 문명적 능력을 자각하는 역사연구는 민족적 실천의 근본적 과제가 된다는 것이였다. 그리고 이런 그의 생각은 한말 이래 가져왔던 고민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한말의 문명개화론이 서구문명에 지나치게 압도되어 주체적 문명발전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최남선은 외부에 의해 주어지지 않는 민족의 고유한 문명적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문명적 부활을 가능하게 할 보편적 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였다.

한편 192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조선학 연구에 착수한 최남선은 자신이 제기한 역사연구의 실천적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세문제에 집중하였다. 첫 번째는 식민지 현실이 민족적 부활의 필연적 계기임을 설명하기 위해 민족의 역사적 시련을 민족완성의 역사적 계기로 설명하는 것이였고, 두 번째는 단군과 고조선을 역사적 실체이자 동아시아문명의 구심점으로 재정립함으로써 문명적 부활의 역사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였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고조선의 문화적 유산이 국가사의 부진에도 불

구하고 민족의 생활과 신앙 속에 계속 이어져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특히 최남선은 1920년대 중반 이후의 집중적 연구를 통해 삼국유사의 단군기사가 조작되었다는 일제의 조작설을 비판하는 한편, 고조선을 고대 동아시아문명의 중심국가로 입증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고조선을 불함문화권이라는 고대동아시아 문명의 중심국가로 재정립함으로써 민족의 문명사적 기반과 저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단군과 고조선을 역사적 실체이자 동아시아 고대문화의 대표자 그려낸 최남선의 연구는 발표와 더불어 커다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민족의 역사적 기원까지 허구로 무시하는 일제의 단군조작설을 역사적 실증을 통해 반박하고, 민족의 역사적 기원을 동아시아 문명의 대표자로 재정립한 그의 성과가 민족적 자긍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조선학 수립론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만해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민족주의계열에서는 그의 성과를 크게 환영하였다. 민족적 단결과 민족정신의 부흥을 외치는 그의 주장이 식민지배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논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세력의 공세에 대응할 사상적 자원을 제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동아일보는 시대일보 이후 발표할 지면을 갖고 있지 못하던 그를 객원축탁에 위촉하여 마음껏 주장을 발표할 수 있게 한 것은 물론, 강연회, 답사회를 조직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그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단군과 고조선을 민족적 정신의 지표로 확립하여, 조선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재구축하겠다는 그의 구상이 사회적 호응을 얻어내는데 일정하게 성공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대중의 호응과 별개로 내적으로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연구조건의 한계도 있었지만, 세계사적 차원에서 고조선의 문명사적 의의를 입증하려 함에 따라 연구방법론에서나 사상적 측면에서나 적지 않은 무리가 따랐기 때문이었다. 우선 그의 주장의 핵심이었던 불함문화론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언어의 유사성을 추적하여 문

화권을 설정한 그의 방법론은 어원을 추정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주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단어의 존재만으로 문화권을 설정하여 자의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더욱이 언어계통분석의 방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사단어로는 고조선의 문화권 내 위상을 밝힐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또한 고조선연구를 통해 그가 제시한 고조선문화의 정신적 특질 역시 사상적으로는 특별한 경쟁력을 갖지 못하였다. 최남선은 제사 중심의 문화와 노동과 실질을 중요시하는 생활양식이 고조선인의 문화적 특질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사회주의나 문화주의에 대응할만한 특별한 사상적 내용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지식인사회와 민족운동에서 그의 입지를 제약하였다. 1920년대 이후 민족운동, 사회운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입지가 거의 없어진데다, 그의 연구에 호의적이던 민족주의계열 지식인들조차 그의 연구를 과학적 연구로 평가하지 않았고, 사회주의자들은 그의 주장을 조선현실과 상관 없는 여유 있는 지식인의 한담정도로 치부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밝혀내기 위한 선구자적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로 평가되지 못하였다.

정력적 연구활동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한계에 부딪히자 최남선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선사회와 민족운동계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단군과 고조선이 민족정신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조선사회가 민족의 부활을 바라면서도 그 실천방향에 대해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며, 민족을 멸시하는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더욱 조선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하려는 노력’들이 좌절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비판적 인식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조선사회에 대한 전면적 비판으로 이어졌다. 현재의 조선은 목소리 크고 억울 잘하는 자가 주도하는 세상이며, 현재의 상황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단군과

고조선이 사상적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음에도, 실현되지 못하는 조선사회의 상황에 좌절감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감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순수한 연구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민족운동 안에서 자신이 할 역할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시대일보 실패 이래 부채에 시달리며 생활에 압박을 받고 있던 그는 신간회운동이 한참 진행되던 1928년 조선사편수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생각의 결론을 행동으로 표출하였다.

조선민족의 문명사적 위상을 증명함으로써 민족자립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제시한다는 것이 최남선의 애초 문제의식이었지만, 그러한 사상적 실천이 한계에 부딪히자,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수 없는 조선민족의 주체적 능력을 부정하고, 일본의 관변 아카데미에 흡수되어 간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그의 한계는 현실과 괴리된 문명론적 역사인식이 갖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1930년대 조선학운동이 국가단위로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접근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 참고문헌

### 1. 사료

- 『동아일보』, 『조선일보』, 『청춘』, 『소년』, 『동명』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 편, 1974, 『육당 최남선  
전집』 1-15, 현암사, 1974  
안재홍 선집 간행위원회 편, 1972, 『민세 안재홍선집』4, 지식산업사,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 2. 논저

- 조동걸, 1998, 『현대 한국사학사』, 나남출판  
이지원, 2007, 『한국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이영화, 2003, 『최남선의 역사학』, 경인문화사  
전성근, 2008, 『근대조선의 아이덴티티와 최남선』. 제이앤씨  
류시현, 2009, 『최남선 연구 -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의 문화』, 역사비평사  
류시현, 2011, 『최남선평전』, 한겨레출판  
육당연구학회, 2009, 『최남선 다시 읽기』, 현실문화  
육당연구학회 엮음, 2015, 『최남선과 근대지식의 기획』, 현실문화  
허 수, 2011, 『이돈화연구』, 역사비평사  
이태훈, 2008, 「1920년대 초 신지식인층의 민주주의론과 그 성격」 『역사와  
현실』 67  
최선웅, 2015, 「1910년대 조선에서 자유주의의 두 가지 유형과 성격」 『역사와  
담론』 75



Abstract

Ch'oe Nam-sŏn's Korean Studies and Practical  
Limitations in the 1920s

Lee, Tae Hoon

Ch'oe Nam-sŏn proposed the conduction of Korean Studies in 1922 because he thought that eliciting the nation's civilizational capability would be essential for the resurrection of nation. His thoughts resulted from his continued problématique since the late 19th century. He believed that the autonomous development of civilization would not be attained by only following the Western civilization. Ch'oe Nam-sŏn largely focused on three research topics in the 1920s. The first theme was to explain the national ordeals as historical momentum. The second was to reestablish Tan'gun and Old Chosŏn as the center of the ancient civilization in East Asia. The third was to prove that the cultural heritage of Old Chosŏn passed down to the life and religious faith of the nation. Yet most of all, he made every effort to demonstrate that Old Chosŏn was the center of the ancient civilization of East Asia, which was called the Pulham Culture Area.

Ch'oe Nam-sŏn's research received positive responses among the general public. This was because he refuted Japanese scholars' assertion that Tan'gun was fabricated, and he reestablished the Korean national origin as the beginnings of East Asian civilization.

Ch'oe Nam-sŏn also gained the support of nationalist intellectuals as well as the mass people. His claim for national solidarity provided them with intellectual resources for ways to cope with socialists' ideological offensive.

However, his study had limitations. The research method was lacking in objectivity and the ideological message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Even the supportive nationalist intellectuals did not consider his work as scientific research and criticized it as an ideological study like that of socialists. Ch'oe Nam-sŏn's ideas resonated with the general public, but his role inside the camp of nationalist movement almost disappeared.

Ch'oe Nam-sŏn thought that the Chosŏn society and nationalist movement had serious problems, when he failed to draw positive responses from them despite all his passionate research activities. He believed they did not desperately consider methods for practice though they expected the resurrection of nation. He also criticized that socialists' ideological dependency frustrated all efforts to love and glorify the nation. Ch'oe Nam-sŏn did not think the current situation of Chosŏn would be improved for some time. He felt deeply discouraged by the frustration of his endeavor to establish Tan'gun and Old Chosŏn as an ideological pointer. Giving up on the Chosŏn society and nationalist movement, he participated in the Committee for Compiling Korean History (Chosŏnsa P'yŏnsuhoe) in 1928 and began to work following his thoughts. Ch'oe Nam-sŏn wanted to prove the Chosŏn nation's civilizational status and propose a principle of national independence, but as his research activities were frustrated, he began to deny the Chosŏn nation's autonomous ability and was absorbed into the theory of East Asian

Culture centering on Japan.

Keywords : Nation (Minjok), Theory of Pulham Culture, Ch'oe  
Nam-sŏn, Culture, History of Civilization, Tan'gun,  
Old Chosŏn, Korean Studies (Chosŏnhak)

